

P-1 치근활택술 단독시행과 치은연하소파술 병행시의 치료효과 비교

지석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목적

치은연하 소파술은 비외과적 치료술식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골연상낭의 치료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치주낭 깊이 감소와 치은 수축에 의해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근면 활택술만 시행한 것과 이에 부가적으로 치은연하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의 치료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방법

서울대학병원 치과진료부 치주과에 내원한, 14명의 중등도 성인형 치주염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split mouth design으로 한쪽 사분악은 치근면 활택술, 그 반대쪽은 치근면 활택술과 치은연하 소파술을 실시하였다. 측정은 baseline, 1개월, 3개월에 실시하였다. 임상지수로는 치주낭 깊이, 치은퇴축(pressure-sensitive probe 사용), 치은지수, 치태지수, 탐침시 출혈, 동요도(Periotest 이용)를 사용하였고, 세균학적 변화는 암시야 현미경으로 운동성 세균, 비운동성 세균의 구성 비율과, 세균 배양을 통해 혐기성 세균 중 black-pigmented Bacteroids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결과

1. 치주낭 깊이, 치은퇴축의 경우, 두 군 모두 1개월 후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고, 3개월까지 유지되었으나, 두 군간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2. 치은지수, 탐침시 출혈도 두 군 모두 1개월 후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으나 3개월에는 다소 증가되는 경향이었고, 군간 차이는 없었다.
3. 세균 구성 비율의 변화에서 운동성 세균은 두 군 모두 1개월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 3개월에서는 처음 수준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4. 혐기성 세균 중 black-pigmented Bacteroids의 비율로는 1개월에서 두 군 모두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 부가적인 치은연하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가 더욱 많이 감소하였고, 3개월째에도 유의성 있게 감소가 유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은연하 소파술은 치근면 활택술에 부가적인 임상적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세균학적인 재발은 다소 느리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